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이 건 우  
 (연구위원 · 신성장산업실)  
 gwlee@kiet.re.kr

### 〈요 약〉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GDP의 55.8%, 총고용의 6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향후 산업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상호보완적 연관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제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 둘째,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각종규제 및 차별적 제도의 개선, 셋째, 단계적 시장개방, 넷째, 서비스산업 관련통계의 정비·확충, 다섯째, 서비스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1.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제조업은 1차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조업의 주도적

인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70년 43.5%에서 1979

년 40.6%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55.8%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29~3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1년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2년 현재 28.8%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종별로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과 부동산이 각각 8.7%로 가장 크고 금융 및 보험이 8.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제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3.9%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실질성장률을 기간별로 보면 1980~90년대 전반에 각각 8.3%, 7.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4.7% 수준까지 하락한 후 2001~2002년에는 5.9%로 다시 회복되었다.

주요 서비스업종별로 부가가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이 1971~2002년 기간 중 각각 연평균 16.4%와 14.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사업서비스도 1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문화오락서비스, 운수

<표 1>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대GDP 비중 추이(명목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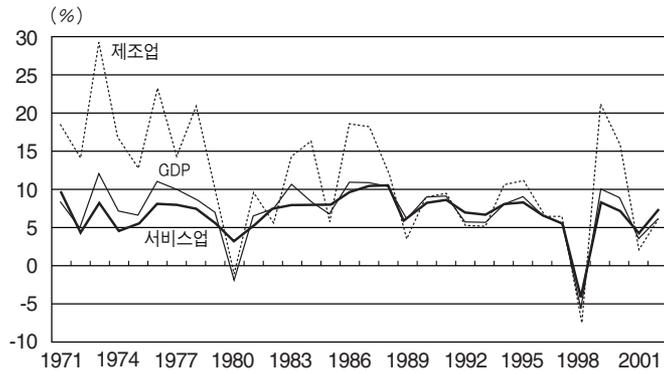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서비스업	43.5	44.6	48.3	51.0	53.0	54.0	55.8
도·소매업	14.3	11.9	11.0	9.8	9.2	9.1	8.7
숙박·음식업	2.6	1.7	2.5	2.6	2.9	3.1	3.1
운수 및 보관	6.0	6.3	4.7	4.6	4.4	4.3	4.2
통신 및 방송	1.0	1.8	2.3	2.3	2.8	2.8	2.8
금융 및 보험	2.1	5.4	5.6	6.5	6.9	6.9	8.5
부동산	4.2	4.0	6.2	7.5	8.2	8.5	8.7
사업서비스	1.1	1.6	3.1	4.0	3.9	3.8	3.9
공공행정 및 국방	5.1	4.9	4.2	4.1	4.3	4.5	4.5
교육 및 연구	3.6	4.2	4.6	4.8	4.9	5.1	5.2
의료 및 보건, 사회보장	0.7	0.9	1.9	2.1	2.5	3.0	3.0
문화오락서비스	0.6	0.5	0.9	1.3	1.4	1.5	1.7
기타서비스	2.1	1.5	1.4	1.4	1.5	1.5	1.5
제조업	21.3	28.6	28.9	29.2	31.3	30.3	28.8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및 보관, 도소매, 의료 및 보건의 경우에도 각각 8~9%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업과 부동산, 교육 및 연구, 기타서비스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주요국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서비스부문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그림 1〉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추이(실질 부가가치 기준, 연평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7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이

〈표 2〉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성장률 추이(실질 부가가치 기준, 연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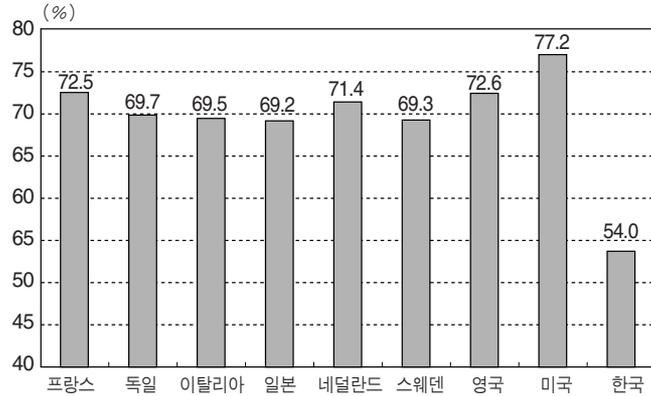
	1970~80	1980~90	1990~95	1995~2000	2000~2002	1970~2002
서비스업	6.5	8.3	7.7	4.7	5.9	6.9
도·소매업	8.3	10.5	6.7	4.5	4.2	7.9
숙박·음식업	4.8	7.9	8.3	4.1	6.8	6.3
운수 및 보관	12.5	7.2	5.3	5.2	4.8	8.0
통신 및 방송	19.2	12.3	17.8	19.2	13.0	16.4
금융 및 보험	19.9	15.3	14.6	4.4	10.4	14.5
부동산	5.4	7.4	7.1	4.8	4.5	6.1
사업서비스	15.4	14.9	12.6	2.8	4.8	12.1
공공행정 및 국방	2.5	2.5	2.6	0.9	-0.5	2.0
교육 및 연구	4.7	5.2	3.2	1.4	2.9	4.0
의료 및 보건, 사회보장	10.5	14.9	7.0	2.2	0.1	9.3
문화오락서비스	3.2	14.6	12.5	5.9	17.2	9.4
기타서비스	6.0	6.8	7.2	3.0	4.1	5.8
제조업	15.6	11.2	8.4	8.1	4.2	11.2
GDP	7.4	8.8	7.5	5.0	4.9	7.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들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명목 GDP 비중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즉 취업자수(무급종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1980년 37.0%에서 2002년 63.3%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 27.2%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 현재 19.1%까지 떨어졌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980년 이후 연평균 4.7%를 기록하여 제조업 및 전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 1.7%, 2.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것은 서비스산업 전체의 고용비중만을 볼 때 우리 경제의 고용구조도 소위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점

〈그림 2〉 주요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2001년)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3.  
주 : 스웨덴은 2000년 기준.

차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각각 18.0%와 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부문 고용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서비스의 비중은 10.8%,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보관·통신의 비중은 각각 7.5%와 6.2%를 나타내고 있다. 비중변화의 방향을 보면 도·소매, 금

〈표 3〉 부문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연증가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제조업	21.6	23.4	27.2	23.6	20.3	19.8	19.1	1.7
서비스업	37.0	44.3	46.7	54.8	61.2	62.6	63.3	4.7
기타산업	41.4	32.3	26.2	21.6	18.5	17.7	17.5	-1.7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

자료 : 통계청, KOSIS.

〈표 4〉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서비스업	52.5	54.8	57.8	61.2	61.2	62.6	63.3
도·소매업	18.4	18.6	18.7	19.3	18.1	18.2	18.0
숙박·음식업	7.0	7.9	9.0	8.9	9.1	9.0	9.1
운수·창고·통신	5.3	5.3	5.5	5.9	6.0	6.1	6.2
금융 및 보험	3.4	3.6	3.7	3.6	3.6	3.5	3.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8	4.5	5.4	5.9	6.4	7.1	7.5
교육 및 연구	5.0	5.0	5.3	5.6	5.6	5.7	6.0
의료 및 보건	1.5	1.5	1.6	1.9	2.0	2.2	2.5
기타서비스	8.2	8.4	8.7	9.9	10.5	10.6	10.8
제조업	24.5	23.6	21.4	19.8	20.3	19.8	19.1
전체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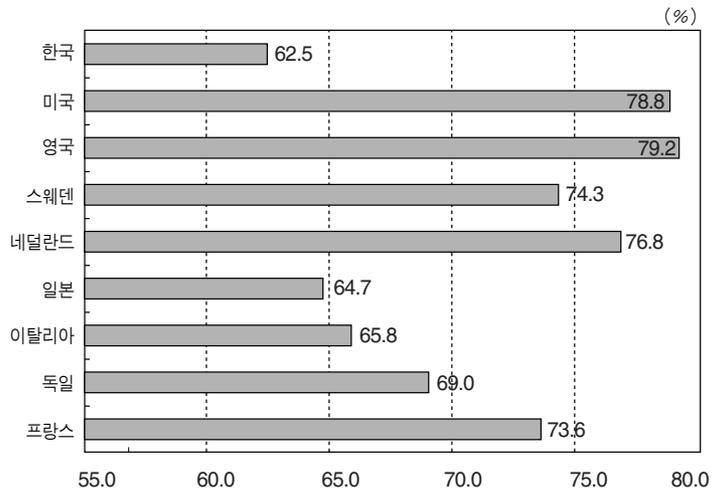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용 및 보험의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창고·통신,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용 면에서 서비스화 정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GD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무려 8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미

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이 GDP 비중보다 높은 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그림 3〉 주요국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2001년)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3.

이 GDP 비중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 2.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변화를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서비스<sup>1)</sup>의 비중이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과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및 법무서비스, 경영컨설팅,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기계 및 장비임대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이 긴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는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서비스공급의 증가로 나타난다. 각 산업의 생산이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전 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의 비중을 보면 1985년의 18.3%에서

2000년 27.7%로 약 51%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14.2%로 32.7%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경제 전체로 볼 때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는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전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과거 기업내부에서 수행되던 회계, 경리, 연구개발, 교육, 건물보수·유지, 경비 등 생산지원서비스 업무가 외부업체에 의해 조달되는 외주화(outsourcing)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산업이라든지 제조업만이 절대로 중요하고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부차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종래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서

1) 생산자서비스는 일명 기업지원서비스라고도 하며,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에서의 생산을 위해 투입재로 사용되는 비율(중간수요율)이 평균을 초과하는 서비스업종을 말한다. 주로 금융·보험,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및 법무, 경영컨설팅,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도소매, 운수·보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스화의 절대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예로서 일본의 경우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의 비중은 2000년 현재 각각 42.2%와 25.1%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52%, 77%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산업발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상호보완적 연관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제조업 생산효율의 향상, 중요한 서비스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의 출현, 기존상품의 고기능화·고부가가치화 등 제조업의 발전에서 서비스산업이 담당하는 적극적 역할

은 향후에도 증대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보완관계의 심화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제조업 생산이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생산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정산업의 생산이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여타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서비스산업에 비해 약 40% 가까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생산성 증가율 면에서도 제조업이 서비스업

<표 5> 부문별 중간투입 총액에 대한 서비스투입액의 변화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일본(2000)
전 산업	18.3	21.8	26.0	27.7	42.1
제조업	10.7	13.9	14.7	14.2	25.1
서비스	39.7	45.4	53.9	53.5	58.6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日本經濟産業省, 「平成12年簡易延長産業連關表」, 2002. 4.

<표 6>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변화

	1990	1995	2000	일본(2000)
전 산업	1.765	1.671	1.659	1.770
제조업	2.056	1.946	1.959	2.258
서비스	1.558	1.542	1.581	1.636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3. 9. 18.

---

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3. 정책방향

서비스산업의 성장부진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다시 말해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경제 전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마저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도 80년대까지 누적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불균형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에 사용되는 서비스 중간투입의 지속적인 증가는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제조업 생산효율의 향상,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고기능·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충격의 완화와 물가안정, 고용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

서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제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소득 수준의 장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부수되는 보조적 산업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로서 인식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 외형만의 성장은 서비스업 자체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서비스산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진보가 서비스산업뿐 아니

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제조업을 보완·지원해 줄 수 있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즉 유통 및 물류, 금융 및 보험, 통신서비스, 법무·회계·경영컨설팅·엔지니어링·광고·디자인 등의 사업서비스를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4.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1)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산업은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이 생산성 향상의 요체가 되는 산업이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사회에서는 고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에서의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인적자

원 기반을 확충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병행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부진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금융제약 이외에도 마땅한 교육훈련 기준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과거 한국의 산업인력 양성정책은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기준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기준 등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인적자원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직무별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및 자격기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자유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 고학력 전문직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인력의 지식수준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 주도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교육훈련 구좌제<sup>2)</sup>의 도입 등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개인교육훈련 구좌제란 근로자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교육훈련계좌를 개설한 개인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2000~2001년에 시행된 영국의 ILA(Individual Learning Accounts)가 대표적인 예이다.

## (2)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으로 규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규제의 타당성이 크게 퇴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운수, 통신 등 공익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비스가 관행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WTO나 OECD 등 다자간규범이나 특정국가의 요구에 따른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와 완화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제도,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서비스분야에서의 국내자격제도에 의한 진입규제, 업무영역제한, 각종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진입·업무·가격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나 관행이 많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진입 및 퇴출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규제나 업무규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자간 차원에서 조만간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확대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

리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적 담보가치가 적은 서비스기업은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재검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와 기업은행의 '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 및 조세제도의 경우에도 최근 많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R&D 지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서비스관련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종 정책지원 및 시책에 기준이 되므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범위를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서비스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은 1996년 말 OECD 가입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짐으로서 현재 극히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 면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분야에서 법률이나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와 같이 국내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설립해야 하는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상파·중계유선방송은 외국인투자가 완전 금지되고 있는 한편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의 경우 외국방송채널의 국내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스크린쿼터제도와 방

송프로그램쿼터제도 등 콘텐츠에 대한 수량제한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로 인해 당초 목표시한인 2005년 초까지 협상 종료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은 무엇보다도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교육, 의료, 시청각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자유화수준이 낮은 지식집약적 서비스분야에서의 단계적인 개방 확대는 대내외 경쟁의 확대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 서비스산업 통계의 정비·확충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정책상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서비스산업 기본통계도 대폭 정비·확충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나 서비스부문 통계체계의 미비 및 통계내용의 부실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통계가 정비된 금융 및 보험, 운수, 통신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는 시계열상으로는 조사대상항목의 범위 면에서 볼 때 제조업에 비해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서비스업종의 광범위성에 비추어 통계조사 상의 현실적인 한계는 있으나 국내 서비스업 통계는 산업경제분석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 성장잠재력 및 거시적 지표 등을 가공·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러한 지표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표 항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통계의 확충이 시급한 분야로서는 제조업과의 관련 속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회계·법무·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와 소비지출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개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 통계 체계 및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통계내용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의 산업분류 및 통계기준과의 조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서비스산업 통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한 서비스교역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UN과 OECD가 다자간 서비스협상의 지원을 위해 제정한 '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에 기초하여 서비스거래 분류체계의 세분화와 통계수집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5)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정책과 제도는 그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제조업 간 보완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정책과 제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간의 교차 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역량의 결집 차원에서 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도 서비스업종별 담당 부서가 상이하여 관련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결국 정책역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업체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

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